

총선 두달 앞으로...막으론 공천전쟁

탈당자 상관없이 20% 배제...현역 초긴장

더민주-광주·전남 현역의원 8명중 1~2명 교체 관측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조항이 공천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 시절, 127명의 현역의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는 공천룰을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탈당 사태가 생기자면서 이들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 생겼고, 당시 지도부는 탈당자도 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탈당 여부에 상관없이 하위 20% 배제 조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8명의 더민주 소속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1~2명 정도가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창선 공관위원장은 10일 "공관위원들과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충분히 고찰한 뒤, (배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혁신 공천 경쟁을 벌이는 더민주가 탈당을 명분으로 하위 20% 공천 배제를 무력화시킨다면 상당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민주의 전라공천 심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민주의 호남에서

의 탈당 사태로 변화와 쇄신에 맞는 전략 공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당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오기형 변호사,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의 광주 지역구 전략공천설이 나온다. 더민주의 이날 말 1차 전략공천 지역구와 후보를 발표하는 등 순차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민주의 이날 공관위원 8명을 인선했다. 정장선 총선거혁신단장을 비롯해 우태현(5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현태(49) 한림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이강일(49) 행복가정재단 상임이사, 박명희(68)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서혜서(62) 변호사, 최정애(48) 동시통역사, 김가연(36) 사단법인 오픈넷 상근변호사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선숙-박주현 '공천 칼바람' 주도할 듯

국민의당-천정배 "광주 공천, 시민사회에 일임 검토"

세정지를 내건 국민의당은 합류한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 전원을 그대로 공천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현역의원들을 경선에도 못 나가게 할 수 없고, 또 일반 경선을 하면 신진인사가 불리한 구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박선숙 사무총장과 박주현 최고위원 겸 당규제팀 TF 팀장을 통해 '공천 칼바람'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의중을 따라 핵심 당직을 맡게 됐고, 안·천 공동대표는 신진인사 등을 용을 수시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

에다 전문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과 박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춰본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박선숙-박주현' 콤비가 현역 물갈이 여론을 주도하고, 전 위원장이 힘을 실어줄 경우 광주·전남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풍'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 공동대표가 지난 9일 광주MBC 대담 프로그램에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광주 공천만큼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시민사회인사에게 아예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당에서 도입 검토

중인 속의선거인단에 광주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시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국민의당은 10일 대표 비서실장에 박인복 전 창당준비위원회 공보특보, 전략홍보본부장에 이태규 창준위 실무지원단장을 각각 선임했다. 또 국민소통본부장에는 이주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임명하고 김경현 국민회의 공보팀장, 김희경 전 더민주 대변인 등 3명을 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들은 모두 원외인사로 현역 물갈이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외부인사 6명 추가 공관위 구성 마무리

친박·비박 공천방식 대립

새누리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이 비록 야권의 분열로 유리한 고지에서 치러진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새누리당은 지난 6일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공무원 연금개혁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 외부 인사 6명을 추가 인선했다. 새누리당은 '국민행복' 부문으로

김 교수와 김순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인선했다. 또 '청년·여성' 부문으로 최공재 차세대문화인연대 대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회실장이 포함됐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창조경제), 이옥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국가혁신)도 공관위원으로 발탁됐다. 앞서 당 최고위는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함께 황진하 사무총장,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김희선 당 클린공천지원단장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공관위는 5명의 내부인사(현역의원)와 6명의 외부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어 공관위는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열고 4·13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 일정을 확정했다. 10일 공관위에 따르면 제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과 관련, 공고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왔고, 또 공모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실시기로 했다.
이처럼 공천 준비는 야당보다 빠르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식 공천방식과 전략 공천 유무 등을 놓고 친박(진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가 계속 대립하고 있어 신속한 공천작업의 결실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주승용 원내대표 등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물·혁신 경쟁으로 정권교체 발판 만들어야
분열하면 비호남권 필패...통합 요구 목소리도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설 연휴기간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선 광주·전남 현역 의원들이 '아전인수' 식 해석을 내놨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 우열에 대한 평가는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렸지만, 의원들은 이제부터 인물·정책 대결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본격적인 승부를 예고했다.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인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은 10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탈당하라고 재촉했지만, 최근에는 당을 버리고 떠나면 되겠냐, (당에) 잘 남았다는 격려가 많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민심이 확실이 나뉘어진 것 같아 보인다"고 민심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분열돼 속이 상한다는 질책도 많이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야권 통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수권비전과 인물공천, 연대와 통합이라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면서 "더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동시에 개혁적이면서도 능력있는 인물 공천으로 변화를 완성하고, 여기에 야권의 연대와 통합이 더해질 때 총선 승리는 가능하다는 것이 설 민심의 핵심이었다"고 전했다.
더민주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기존에는 관심 영역이 정당에 쏠렸다면 이제는 누가 나오고, 어느 당 인물이 낫느냐로 옮겨가는 흐름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은 새롭게 창당한 국민의당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혁신적 정당으로 자리매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특히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꼭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지율에 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시각은 달랐다. 천정배(광주 서구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당에 대한 시민의 기대, 지지가 이미 확고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기존 야당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고 호남정치를 복원해 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어렵겠다"는 인식이 매우 확고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은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에서 특정 정당의 프리미엄, 이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최초의 선거"라며 "유권자들이 여러 당의 후보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권 회복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당들도 긴장을 풀지 않고 상품의 질, 후보자 선정,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소속 박지현 의원은 야권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혹자는 DJ·YS·JP 때를 말하지만 해도 전국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과 중통합 후 야권을 단일화하고 총선 후 대통합해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며 "저의 정치적 생명은 거기까지"라고 통합론을 재차 피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aTour featuring a scenic background image of a building. The ad includes the text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and details for a '마카오/홍콩 4일' package. It lists departure dates (Feb 24 and 27), flight to Macau, and hotel options. Two packages are shown: one for 1,199,000 won and another for 1,599,000 won.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062-228-1199) are also provided.